

지역 소식통

김제경찰서 사회적거리두기 앞장서

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2주 연장됨에 따라 김제경찰서 및 지역관서 청사 방역과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청사 출입자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청사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하여, 의경과 직원이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경찰서 전 공용차량 및 민원인 출입이 잦은 부서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동참으로, 점심시간 구내 식당 이용시 3개조로 나눠서 식사, 식사공간 2m 유지 등의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중이고, 전 직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외출·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임종명 김제경찰서장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을 하고 있으며, 청사 출입시 손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으로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자매도시 중국 화안시, 군에 마스크 지원

중국 강소성 화안시가 전북 완주군에 마스크 1만장을 지원했다.

완주군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화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원한 마스크가 군청에 도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 이날 완주군에 도착했다.

군은 화안시에 서한문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국에서 기부해온 마스크를 코로나19 예방활동을 현장에서 펼치고 있는 봉사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방세 불복시 무료 지원

완주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지원 대상, 납부세 천만원 미만·재산 가액 5억원이하 등

완주군이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를 무료로 도와준다. 8일 완주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

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구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완주=이종복 기자

맥류 출수기, 보리 붉은곰팡이병 예방해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배수로 정비·적용약제 살포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에서는 기온이 높아 보리 출수기가 1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붉은곰팡이병 발생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발생초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보리 붉은곰팡이병(적미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보리 이삭이 패는 시기부터 이삭이 여물기 이전까지 비가 잦고 95% 이상의 상대습도가 3~5일간 지속될 경우 병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다.

김제지역 3월 평균기온이 작년과 비교하여 0.7℃ 높아 맥류 출수기가 1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출수기에 맞춰 앞으로 약제방제와 포장관리가 중요하며 병 방제를 위해 보리밭 습도가 높지 않도록 배



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이삭이 패는 시기나 병 발생 초기에 깎판 등 적용약제를 살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리 붉은곰팡이병은 초기방제가 매우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가 완주군청에 선정 대리인 신청을 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은 "완주군 선정대리인제도 시행으로 그간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이거나 복잡한 절차로 불복청구를 어렵게 여겼던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많은 군민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쓰고 남은 폐농약 수거한다"

완주군, 20일부터 2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제출 가능

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8일 완주군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읍면을 통해 폐농약을 수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수거 했고, 미 개봉된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납이 가능했다. 하지만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농약은 수거 및 처리체계 부재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난해부터 폐농약을 수거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농약별로 각각 밀봉하고 액상 및 고상으로 나눠 박스에 담은 후 밀봉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된 폐농약은 농업기술센터에 인계 후, 폐농약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 할 예정이다.

이세자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장은 "폐농약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 효과가 있다. 특히 농가에서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허용물질감화제도)제도를 실천하도록, 사용하고 남은 농약 수거를 농가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수리, 소형농기계 및 시설하우스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농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농가주택 수리비, 시설 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의 지원사업으로 2억원(시비 1억원, 자부담 1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중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 수가 늘고 있다.

특히 건조기와 저온저장고(10㎡ 이하)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사를 짓는 귀농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신청 당시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한지 5년 이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해당되며, 우리시 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우리시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귀농귀촌을 통해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5개소 마을·시민 텃밭 4월부터 개장

완주군이 마을텃밭과 시민텃밭을 개장했다.

8일 완주군은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마을텃밭'과 '시민텃밭'을 이달 4월부터 개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3개 읍면(봉동읍, 용진읍, 이서면) 총 5개소 660구획의 텃밭을 조성해 지역민과 전주시민 등 도시민에게 분양을 완료했다.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텃밭 2개소는 ▲봉동읍 낙정마을 ▲이서면 오목마을에 마련됐으며,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시민 텃밭 3개소는 전주에서 가까운 ▲용진읍 두억마을 ▲봉동읍 서두마을 ▲이서면 정봉마

에 조성했다. 이중 봉동읍 서두마을은 마을과 완주군 산업단지에 입주한 회사 간 직접적인 자매결연을 통해 분양 완료했다.

분양 규모는 각 텃밭마다 상이하지만 세대 당 16.5㎡(약5평), 33㎡(약10평)으로 저렴한 분양료(1~3만원)으로 올해 12월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원두막, 급수시설 등도 마련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땀 흘리며 재배하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먹거리를 직접 생산해 봄으로써 로컬푸드 소비의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공동체도 향상시킬 수 있다"며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초등학생 온라인개학 학습지원 도우미 청년 일자리로

김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학습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맞추어 청년일자리를 지원하여 온라인학습이 어려운 환경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학습 도우미 지원사업은 김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온라인 학습기기를 보유하고 학습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가정 방문을

통해서 온라인 접속방법과 학습요령 등 교육이 이루어진다.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학습 도우미 지원 기간은 4.16일부터 4.29일까지 10일간으로, 신청자격은 일자리 알리미에 등록되어있는 청년과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만20세~50세 미만에 해당하

는 미취업자로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4. 8일부터 4. 10일 12시까지 김제시청 인재양성과(540-3939, 3585)에서 신청을 받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온라인 개학을 앞둔 소외계층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계층 간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고,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Im-si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scenic background of a cheese factory.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and '임실치즈'.